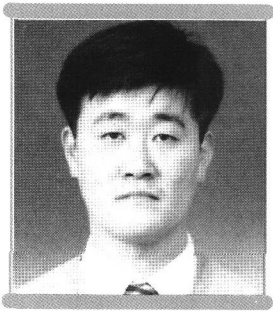


## 산업보건의 지평을 넓히자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송재석

‘대한산업의학회’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명칭 변경이 가지고 있는 함의(含意), 명칭이 변경되어야 했던 그 배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유효하다.

산업의학은 ‘Industrial Medicine’이라고 번역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제시되었던 2차 산업을 연상시킨다. 반면 직업의학은 ‘Occupational Medicine’이며 이 어휘가 좀 더 포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은 대부분 2차 산업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초기 시작은 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대부분의 광산이 문을 닫은 지금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많은 제조업체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제3세계로 진출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전적인 산업보건적 접근은 많은

제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대한산업의학회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의 본질을 규정짓는 것이 오직 임금을 받는 지의 여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가?

프로 축구선수는 본질적으로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라고 하는 행위에만 규정하여 보면 근로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축구선수는? 그들이 하는 축구라고 하는 ‘행위’가 프로 축구선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다.

그들은 좀 더 좋은 축구팀에 가기 위해서, 혹은 소속 팀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강요된’ 훈련을 받는다. 즉, 근로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강제성이라고 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인 접근이나 보상제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사회와 같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보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고용 불안정성은 여성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배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유래 없는 장시간 노동은 우리의 생활에서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보건의 지평을 넓혀서 다양한 직종과 업종의 근로자군들을 포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농업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으며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산업보건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종이나 업종에 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물론, 산업보건 내에서의 관심도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산업보건이 갖고 있었던 순수성이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있는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에만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기관이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이 결코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수많은 직종이나 업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산업보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심과 연구의 확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대한 제언,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부터 시작해서 이를 통한 수익구조의 창출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인 것이다.

지금과 같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으면 결국은 산업보건은 괴멸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이제는 산업보건의 지평을 넓혀야 할 때이다. 🍀